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 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km ²	G D P	8,780억 달러 (2012년)
인구	244백만 명 (2012년)	1인당 GDP	3,599 달러 (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9,386.63 (2012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 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함.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내수기반, 정부의 적절한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14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연이은 부정부패 의혹, 부실 금융 기관 지원, 관료주의 등으로 민주당과 현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성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4.6	6.2	6.5	6.2	5.8
재정수지 / GDP	-1.8	-1.2	-0.6	-1.4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8	5.1	5.4	4.3	6.9

자료: IMF 및 EIU.

□ 물가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설비투자, 외국인투자가 모두 활성화되어 6.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민간소비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확대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민간소비 성장세와 고정 자본 투자 증가에 힘입어 6.2%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14년 선거를 앞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전망에 따른 소비와 투자 성장세 완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2013년에는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료보조금 개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 불가피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를 기록한 이후, 연료가격 상승, 소비 증가, 작황 부진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5.1%, 2011년 5.4%로 상승세를 기록함.

-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풍작과 국제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3%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세 인상, 6월중 단행된 연료 보조금 개혁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중 확대 전망

- 각종 경기부양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8%를 기록하였으며, 세수 증가 및 예산의 집행 지연 등으로 2010년 및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1.2%와 0.6%를 기록하여 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연료보조금 지급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4%로 다소 확대되었음.
- 2013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위축,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2014년 선거 실시를 염두에 둔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8%로 증가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열악한 인프라 수준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GDP에서 동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99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
- 세계경제포럼의 2012-2013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78위에 해당되어, 말레이시아(32위), 중국(44위), 태국(46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로(90위), 항만(104위), 공항(89위), 전력공급(93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과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음. 또한, 교통인프라의 취약성으로 물류비가 GDP의 24~27%를 차지(세계 평균 7~10%)하고 있음.

□ 외국인 자금 이탈에 취약한 구조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함에 따라 2009~12년중 인도네시아에 주식투자(760억 달러), 채권투자(461억 달러), 은행차입(642억 달러) 형태로 총 1,863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2012년 인도네시아 GDP의 21%에 해당되는 규모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될 경우 외환보유고 고갈, 환율 급변 등으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2013년 6월 미국이 양적완화조치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41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장은 고평가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 보유비율 역시 높아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외국인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정경유착도 심각함. 세계은행은 부패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 NGO는 부정부패로 인한 2011년 국고손실액이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6개국 중 이집트, 마다가스카르와 함께 118위를 차지하여, 태국(88위), 필리핀(105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튼튼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는 2.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 민간소비가 GDP의 54.6%를 차지하고 있어 탄탄한 내수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McKinsey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30년 인도네시아는 9천만 명의 소비자가 1조 달러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저임노동력 풍부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15~64세) 비율은 65.2%를 기록하여 노동력이 풍부함.
- U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0년 65.2%에서 2025년 68.8%까지 상승추세를 보인 이후 2050년까지 65.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등교육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고급인력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의 2012-2013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 부문 경쟁력은 73위로, 태국(60위), 필리핀(64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함.
- 2012년 말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 37억 배럴(세계 22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3조 입방미터(세계 14위)임. 주요광물자원 중에는 주석이 80만 메트릭톤(세계 3위), 니켈은 390만 메트릭톤(세계 6위), 동은 2,800만 메트릭톤(세계 8위)의 매장량을 기록함.
- 모호한 규제에 의한 설비 노후화 및 채투자 부족으로 최근 석유생산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자원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하지만, 광물 수출세 부과,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산 지분양도 규제 강화, 석탄 로열티 인상 등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숙련공 부족, 전기요금 상승으로 채굴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신투자계획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4월 신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외국인 동등대우,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명시하였고, 2012년 2월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포함하는 신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신투자계획안에는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9년 49억 달러에서 2011년과 2012년에는 192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경상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연료보조금 감축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7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료 과다사용은 무역수지에, 자동차 판매 증가 및 유가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액 상승은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연료보조금 규모는 2009년 45조 루피아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예산 210조 루피아를 크게 초과한 306조 루피아(약 326억 달러)로 급증함.
- 5개의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¹⁾을 함께 추진하여 국회와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였음. 정부는 동 개혁조치를 통하여 무역수지 개선과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
- 201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연료보조금 개혁으로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각각 44%와 22% 인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었으나, 세계은행은 동 조치가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1) 쌀 지원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가계지원 프로그램,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

3. 대외거래

□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 전망

-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10년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도 323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일본의 쓰나미 재해 복구 수요로 대 일본 수출이 증가하여 338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배당송금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0.2%인 17억 달러로 감소함.
-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천연가스, 팜오일 등의 단가하락, 투자 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85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소비 및 투자성장세 둔화,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 감소로 상품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및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의 가격 안정세 유지로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상품수지 흑자는 67억 달러로 축소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242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10,629	5,144	1,685	-24,183	-24,165
경 상 수 지 / GDP	2.0	0.7	0.2	-2.8	-2.6
상 품 수 지	32,287	31,003	33,825	8,482	6,747
수 출	113,266	149,966	191,109	186,996	179,479
수 입	80,979	118,963	157,284	178,515	172,732
외 환 보 유 액	60,572	89,970	103,611	105,907	100,641
총 외 채 잔 액	172,918	202,445	225,418	245,674	260,374
총 외 채 잔액 / GDP	32.1	28.6	26.6	28.0	28.3
D. S. R.	19.4	17.4	14.5	14.5	16.3

자료: IMF 및 EIU

□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액이 금년에는 감소 전망

- 경상수지 흑자,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2011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0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1,05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 등으로 2013년 외환보유액은 1,006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는 2013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981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향후 무리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잔액 규모는 양호하나 D.S.R.은 개선이 필요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28.0%를 기록함.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잔액 규모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D.S.R.은 2009년 19.4%에서 2011년 14.5%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 둔화로 16.3%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당의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인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

- 민주당(Democrat Party: PD)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집권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 민주주의 발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였음. 그러나 연이은 부정부패 의혹, 부실 금융기관 지원, 법 집행력 미약 및 관료주의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21%를 득표하였으나,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11.1%에 그친 반면, 투쟁민주당과 골카르당 지지율은 각각 14.9%, 14.5%를 기록함.
- 유도요노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다소 높지만 2009년 재선 당시 득표율(60.8%)과의 괴리가 크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대통령의 연정 장악력도 크게 떨어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세력의 폭탄테러 등 사회 불안 요소 잠재

- 2002년 제마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찰 대테러부대(Densus88)를 활용하여 JI 조직원을 사살 또는 체포하는 강경책을 구사하여 동 조직의 무력화에 성공함.
- 2012년말까지 820명의 테러리스트가 체포되었고 80명이 사살되었으나, 테러의 완전 차단에는 실패하여 2012년중 경찰 28명이 테러공격으로 희생되었음.
- 특히, 최근에는 반기독교적 성향이나 이슬람 제국 건설이 아닌 보복성 테러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3~14년중 수감중인 테러리스트 중 약 300명이 석방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테러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의 혜택이 일부 지역,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함.
-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1999년 0.31에서 2009년 0.37, 2010년 0.38, 2011년 0.41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고 부자 40명의 재산총액이 최빈층 6,000만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수는 약 3,000만 명에 달함.

3. 국제관계

□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참여

-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G20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립, 영구적 평화 및 사회정의에 기반한 세계질서'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 ASEAN 창설을 주도하는 등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06~08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음.

□ 중국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미국과 관계 개선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기조 하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역내 관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군사협력의 경우, 과거 동티모르 인권문제(1999년)와 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2002년)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4년 개혁지향적인 유도 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
- 2005년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합동훈련을 재개함.

□ 호주와의 관계는 개선중이나 대 말레이시아 관계는 여전히 긴장국면

- 현재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최대 ODA 공여대상국으로, 최근에는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관계는 개선되고 있음.
- 2013년 7월 호주의 러드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교역 확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호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 등을 협의함.
- 말레이시아와는 보르네오섬 동쪽에 위치한 석유가 풍부한 암발라트 (Ambalat)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의 저임금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 2010년 8월 중 양국간 분쟁수역인 리아우(Riau) 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의 인도네시아 어선 나포로 관계가 다소 악화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

- 인도네시아는 파리클럽과 2002년 4월 54억 달러, 런던클럽과는 동년 9월 13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합의하였고,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 채권국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외채원금 26억 달러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여타 채무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채무상환 태도가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 상향 조정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1~2012년중 OECD, S&P, Moody's, Fitch 모두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
- OECD는 2012년 3월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회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증가, 국제수지 개선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1년 1월 국가신용도등급을 Ba2에서 Ba1로 1단계 상향조정 한데 이어, 2012년 1월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 유지 전망 등을 근거로 다시 1단계 상향조정한 Baa3등급을 부여하였음.
- S&P는 2011년 4월 인도네시아의 양호한 경제성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수지 및 대외 유동성 개선을 이유로 국가신용도 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다만, 동사는 2012년 5월 연료보조금 등의 개혁 추진 불투명,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조정하였음.

- Fitch 또한 2011년 12월 높은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흑자기조, 공공부분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BB+에서 BBB-로 1단계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C1 (2012.12.)	C1 (2012. 5.)
OECD	3등급 (2013. 6.)	3등급 (2012. 3.)
S&P	BB+ (2012. 5.)	BB+ (2011. 4.)
Moody's	Baa3 (2012. 1.)	Ba1 (2011. 1.)
Fitch	BBB- (2011.12.)	BB+ (2011.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분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분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s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4년), 문화협력협정(2007년), 범죄인인도조약(2007년)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이자 제9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2011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규모는 경기회복으로 전년도 229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석탄, 원유 수입액 감소로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96억 달러에 그침.

V. 종합 의견

-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 확대, 고정자산 투자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0년 이후 6%대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3년에는 물가 상승, 소비와 투자 성장세 둔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감소, 식료품 가격안정 등으로 4.3%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13년에는 연료보조금 개혁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전기세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6.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12년에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던 연료보조금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위축, 2014년 선거를 앞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1.4%에서 2.8%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연료보조금 개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2013년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송금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의 총외채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채무상환 태도가 양호하며,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 신용도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